

<제8강 : 문장부호, 문제 풀이 정리>

[문 장 부 호]

문장 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마침표[終止符]

1. 온점(.), 고리점(°)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년 3월 1일)

-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 마지막 일자에도 온점을 찍는다

서. 1987. 3. 5.(서기)

2.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이름이 뭐지?

-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나?

남북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붙임 1] 한 문자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쩐단 말이나.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3.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어미 다음에 쓴다.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지금 즉시 대답해!

부디 몸조심하도록!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춘향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붙임]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II. 쉼표[休止符]

1. 반점(,), 모점()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검호,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2.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쉽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 의원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 쌍점(:)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문장 부호 :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사우 : 붓, 먹, 벼루, 종이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일시 : 1984년 10월 15일 10시

마침표 :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정약용 : 목민심서, 경세유표

주시경 : 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오전 10 : 20 (오전 10시 20분)

요한 3 : 16 (요한복음 3장 16절)

대비 65 : 60 (65대 60)

4. 빗금(/)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2) 분수를 나타낼때에 쓰기도 한다.

3/4 분기 3/20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V. 이음표[連結符]

1. 줄표(一)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여들 때 쓴다.

그 신동은 네 살에—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벌써 시를 지었다.

(2)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이건 내 것이니까—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2. 붙임표(-)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겨울-나그네 불-구경 손-발
휘-날리다 슬기-롭다 -(으)르걸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나일론-실 디-장조 빛-에너지 염화-칼륨

3. 물결표(~)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9월 15일 ~ 9월 25일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새마을 : ~ 운동 ~ 노래
-가(家) : 음악 ~ 미술 ~

VI.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 ´)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 이름은 훈민청음이다.

° ° ° ° ° ° ° ° °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을 치기도 한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VII. 안드러냄표[潛在符]

1.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육군 ○○부대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씨, 정××씨 등 5명이었다.

2. 빠짐표(□)

글자의 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옛 비문)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에 쓴다.

“어디 나하고 한 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빨리 말해!”

“…….”

[문제 풀이]

1.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 | | | | |
|---------------|---------|-------------|----------|
| 1) ① 샅쟁이 | ② 크나풀 | ③ 새벽녘 | ④ 위력성당 |
| 2) ① 삭월세 | ② 저으기 | ③ 구젓 | ④ 수소(황소) |
| 3) ① 솟뎡 | ② 솟태지 | ③ 수강아지 | ④ 수체비 |
| 4) ① 바람동이 | ② 오뚝이 | ③ 부죗돈 | ④ 발가송이 |
| 5) ① 동댕이치다 | ② 남비 | ③ 아지랭이 | ④ 쯤체로 |
| 6) ① 욱심장이 | ② 으레 | ③ 허위적거리다 | ④ 미شط가루 |
| 7) ① 주착없다 | ② 웃눈썹 | ③ 호루라기 | ④ 바램(所望) |
| 8) ① 따리 | ② 무우생채 | ③ 온가지 | ④ 막가지 |
| 9) ① 머루치 | ② 암남거리다 | ③ 쌍판대기 | ④ 너(四) 돈 |
| 10) ① 흥길동올습니다 | | ② 여기에 책이 있음 | |
| ③ 먹든지 말든지 | | ④ 봉숭화 | |

2.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 | | |
|-----------|--------|----------|----------|
| 11) ① 소기름 | ② 노닥다리 | ③ 바람을 쐬다 | ④ 게슴츠레하다 |
| 12) ① 애답다 | ② 구들장 | ③ 단별 신사 | ④ 총각무 |
| 13) ① 역겹다 | ② 불돋우개 | ③ 매만지다 | ④ 목메다 |
| 14) ① 죽데기 | ② 샛별 | ③ 밀짚모자 | ④ 푸르락붉으락 |
| 15) ① 푸줏간 | ② 여태껏 | ③ 여쭙다 | ④ 다사하다 |

3.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 | | |
|-----------|--------|------|--------|
| 16) ① 이따금 | ② 훨썬 | ③ 싹둑 | ④ 씹슬하다 |
| 17) ① 달히다 | ② 자칫하면 | ③ 연메 | ④ 금잔디 |

④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32) ① 차와 차가 부딪혔다.

② 현충일에 부치는 글

③ 회의에 붙이는 안건

④ 돈은 이따가도 없다.

6.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게 된 것을 고르시오.

33) ① 6대 3

② 오십육만 사천삼백삼십이

③ 김동식선생

④ 사과, 배, 감들이 있습니다

34) ① 애가 아주 못됐다.

② 아무 것도 안먹었습니다.

③ 무녀도를 지은이는 김동리다.

④ 모두 찬성하는 데 너는 왜 반대하니?

7. 다음 문장은 몇 번 띄어 써야 할까요?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조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